

述語의 論項 자리수 變動에 대하여

— 특히 ‘되다’와 ‘하다’를 중심으로 하여 —

金 智 弘*

I

본고는 술어의 자리수 변동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술어의 자리수 변동이란, 한 술어가 어느 경우에는 논항 하나만을 취하여 마치 한자리 술어인 것처럼 나타나다가도,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술어가 반드시 두자리의 논항을 취하여 마치 두자리의 술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이 때에는 그 두가지의 언어상황에서 술어들 사이의 同質性이 보장되어야 논의가 성립한다. 일단 우리가 두 술어 사이의 동질성이 보장된다고 가정하면, 같은 술어 내에서 논항의 숫자가 변동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술어에서의 논항의 자리수 변동을 줄이어 다만 ‘자리수 변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1) 진짜 그가 사람이 되었다.
- 2)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예문 1)과 2)에는 최소한 음운 형식이 똑 같은 술어가 실현돼 있으나, 두 예문에서 요구하는 논항의 자리수는 서로 다르다. 이들에게서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

부가 또는 수식적인 요소를 떼어내고 기본 요소로써 다시 나타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 1') 되다(그, 사람)
- 2') 되다(시간)

1')은 두개의 논항을 갖고 있으며, 2')은 하나의 논항만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음운 형식의 술어(되다)에 묶여 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제일 간단한 처리 방법은 이들을 전혀 별개의 어휘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곧, 이 두 예문 사이에서 어떤 유사성이나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미세한 차이라도 모두 부각시켜 서로 다른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태도에서 언어를 보는 시각은, 언어란 마치 해변의 무수한 조약돌을 모아놓은 것과 같이 무한정한 나열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가정한다. 이 언어를 구사하는 주체의 능력은 그 요소들과 맞먹는 무한정한 기억력과 동일시된다. 언어 내부의 모종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다(Null Hypothesis). 그러나 우리는 이 극단의 생각에 대해 익숙한 반증을 내세울 수 있다. 우리의 기억 능력의 현격한 제한이 그 하나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共通性을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그 공통성을 허용하는 地盤이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음운론이나 통사론 또는 의미론 분야로부터 어떤 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두 예문이 동일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음운적인 고려였다. 그리고 통사적인 측면에서 논항의 수가 다름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한 측면만의 기준을 부각시킬 수도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결론을 보인다면 그 가운데에서 어느 기준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본고는 意味論的 同質性을 제 1 기준으로 삼고 이 술어들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변동이 생기게 하는 조건들을 그 위에 부가시켜 변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한 술어의 논항 요구 숫자가 변동할 때, 이 변동을 두 개의 다른 술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동일한 술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지하게 논의되어 보지 못한 듯하다. 본고는 후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이 논의를 위해 먼저 몇가지 개념을 언급하여 두는 것

이 편리하겠다.

명제논리나 술어논리에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항진(tautology) 논리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진 논리식들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3) $(A \text{ and } B) \rightarrow A$

4) $A \text{ or } \neg A$

위의 논리식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참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여, A나 B에 어떤 내용의 대상(objects)을 대입하더라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p \ \& \ q) \rightarrow p$, 또는 $(\alpha \ \& \ \beta) \rightarrow \alpha : b \text{ or } \neg b$. 이들 논리식도 3)과 4)의 예와 꼭 같은 진리치(곧, T)를 갖는다. 여기서 모든 임의의 대상들을 대표하는 논리식 3)과 4)를 '타입'(type)이라고 하고, 이 타입에 개개의 대상들을 대입한 예들을 '토큰'(token)이라고 부르자.¹⁾ 그러니까 하나의 타입에는 수많은 토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틀이 있으면 이 틀의 구체적인 실현 양식으로서 여러 사례를 갖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타입과 토큰의 개념을 우리는 한 술어의 공통 기반과 이에 따른 여러 형태의 실현들에 적용하려고 한다. 여기서 타입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한 술어의

1) type과 token을 정의하는 방법은 형식논리에서 다음의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Marciszewski(1981)편 'Dictionary of Logic'의 "Theory of Types" 조항에 따르면 네가지의 학설이 소개되고 있다. Carnap에 의해 시도된 Simple Theory of Types. Russell에 의해 시도된 Ramified Theory of Types. Quine에 의해 수정 제시된 System(NF), 그외의 Liberalized Approaches 등이 그것이다. 첫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한다.

$$(x')(y')((z^{-1})(z^{-1} \in x' = z^{-1} \in y') \supset x' = y')$$

여기서 앞에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은 위의 논리식에 대한 binders들이다. 이때 임의의 type index 'i'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인 'i-1'이 token이 되는 것이다. 변항 z는 token이 되므로 type인 x와 y의 원소가 되는 것이다. 한편 Lyons(1977: 13ff)에 의하면, Pierce는 tokens를 type의 실현형이라고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tokens instantiate their type). 이들의 논의는 우리의 철학사에서 논의되어 온 理와 氣의 개념을 방불케 한다. 우리의 五管을 매개로 경험할 수 있는 氣의 배후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실체로서 理를 상정한다면, 理-氣의 관계가 곧 여기서 논의하는 'type-token'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type과 tokens는 애초에 set-elements들의 관계에서 그 차이(階層)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한다.

基本意味를 상정하기로 한다. 한 술어의 기본 의미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획하는 제1차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²⁾ 제1차 척도를 결정하고 나서, 다음 이로부터 여러 갈래의 실현들을 포괄한다. 이 때에는 통사적 차이점들이 하위 구분의 척도로 이용될 것이다. 본고에서 택한 접근 방법은 우선 포괄적인 설명의 필요성 때문에 고려되었다. 이 포괄적 설명의 방식은 후에 본고의 전개를 통하여 논리상의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음운 형식이 같은 두 개의 술어가 다른 술어로 파악된다면, 이러한 태도가 궁극에 가서는 모든 술어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야 할 복잡성을 야기하고 규칙을 포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동질성을 전혀 문법 기술에 반영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는 남기심 교수의 강의에서 제시되었다. 본고의 전개에서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를 방법론상의 오류나 논리상의 모순은 전적으로 필자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며 그 책임도 필자에게 있다.

II

본고에서 다룰 술어의 실현 양상을 다음에 제시하기로 한다. ‘되다’는 5개의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 5) 떠날 시간이 되었다.
- 6) 그가 내 친척이 된다.
- 7) 나는 그를 믿게 되었다.
- 8) 아기가 염려된다.
- 9) 뻘어(괜찮다는 의미로).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意味를 가르는 區劃 基準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엄격한 형태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물음은 보편적인 語彙 意味 尺度를 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일맥 상통한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도 본고와 같은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 결론들으로써 해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달리 표현하여, 이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실증적인 작업을 거침으로써 자료에 바탕을 둔 경험적 해답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맨 처음에 제시된 예문 5)에서는 술어의 논항이 하나이다. 이를 '되다(x)'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 뜻은 (x)라는 논항을 가진 술어임을 나타낸다. (x)로 표시된 변항은 개체로서의 대상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x) \geq \exists x(x)$: (x)로 표시된 변항 x는 空集음이 아닌 變域(domain) 가운데에서 어느 한 요소를 뽑을 수 있음을 뜻한다. 변항 (x)는 언제나 개체 대상(individual objects)—여기서는 '시간'이 됨—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다. 예문 6)은 두 개의 논항을 가진 술어이다. 이를 '되다(x,y)'로 표시하자. 이 때, x와 y는 $x \neq y$ 임을 지시하여 주기 위해 도입한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x와 y의 원소가 모두 같은 變域임은 물론이다. 예문 7)은 전통문법에서 부사형으로 불려온 }-계와 어우러진 경우이다. 본고에서는 술어마다 독자적으로 명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 모든 술어의 비중을 대등하게 처리하고자 한다. 비록 부사형이라고 불리웠던 것처럼 부차적인 수식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술어가 존재한다면 명제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엄연히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리법의 잇점은, 실질 술어(가령, 본동사류)와 보조 술어의 의미 비중이 같아지므로, 화용론 또는 의미론적 前提를 문법의 우선 순위에 장치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³⁾ 이 예문을 형식화하여 보면 <된다(x,y)-계> 되다(a,b)와 같이 된다. '되다'의 논항 (a,b) 둘 가운데에서 뒤의 논항인 (b)는 앞의 명제 <된다(x,y)> 전체를 받고 있다. 예문 8)은 접미사로 실현된 경우이다.⁴⁾ 여기서 주의

3) 가령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해진 경우, 보조 동사 '보다'는 본동사 '하다'에 못지 않게 전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시키기 위하여서, 보조 동사라고 할 때의 부차적인 語感을 탈피하여 본동사와 대등한 비중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의 명제를 형성하는 술어 요소들이다.

4) 이 예문의 경우는 때로 語基와 접미사 사이에 격어미가 개재되어 "염려가 된다"로도 실현된다. 그러나 이런 분립성은 언제나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또 그 분립성 자체도 완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사의 자유로운 개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염려가 정말 된다), 관계화도 자유롭지 못하고(*되는 염려), 대응 형태의 실현도 이루어지지 못한다(*그 되다, *그것이 되다). 또 관형 성분을 없앨 수 없는 점도 위 반대 사실들과 軌를 같이 한다(*큰 염려가 되다). 이러한 문법적 사실들은 이와 같은 결합이 자유로운 통사적인 地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드러내 준다. 대신 이 결합이 구속적인 통사적 지반임을 밝혀 주며, 전통문법의 접미사 지위로서의 처리가 온당함을 말해 준다. 본고에서는 통사적인 척도에 앞서서 의미론적 척도를 우선

할 점은 접미사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통사론의 차원(엄격하는 語形成에 관여하는 형태론적 차원임)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접미사의 통사적인 불구성(拘束形態) 때문에 종래에 이 형태소는 별다른 차원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고에서는 우선 순위에 의미론적 요소를 넣으므로 이 접미형태도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형식화하여 ‘語基-되다’로 표시하자. 단 이 때 語基에 실현되는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뒷쪽 논의에 미루기로 한다. 맨 마지막 예문 9)는 관용적인 표현이며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등이 이루어졌음(되었음)을 의미하는 형식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나의 판단이나 나의 마음(느낌)에 외부의 상황과 조건이 괜찮다’는 의미도 화용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문법의 최후 단계에서 화용론적 절차를 장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는 단일 논항(또는 두개의 논항)을 갖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로 하겠다. 이상에서 다섯개의 예문으로부터 네개의 형식적인 분류가 가능하였다.

다음은 ‘하다’가 나타나는 환경이다. ‘하다’라는 형태소는 한국어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쓰이는 용언의 하나이다. 그 범위가 넓은 만큼 상대적으로 그 본질을 다루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본고에서 다룰 범위도 무려 10개가 넘는다. 본고에서는 일관되게 이러한 광범위한 환경들을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기본 의미를 상정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 의미는 통사적 조건이나 제약을 통과함으로써 최종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다. 우선 통사적으로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나타나는 예문들부터 보기로 하자.

- 10) 내가 그 일을 했다.
- 11) 내가 그를 오게 했다.
- 12) 그가 온다고 했다.
- 13)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한다.

10)은 전형적인 본동사(여기서는 타동사) 구문이다. 이를 형식적으로 ‘하다(x,y)’로 표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변항인 (x),(y)는 각각 ‘나’와 ‘일’을 가리킨다. 예문 11)은 종래 사역의 구문으로 처리되어 온 것인데, 그 형식은 ‘되다’

순위에 장치하고 있으므로, 의미론적 동일성이 있다면 모두 한가지로 간주한다.

7)의 예문처럼 {-게}를 매개로 하여 앞의 명제가 뒤의 논항으로 수용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이를 형식적으로 나타내면 <오다(x){-게} 하다(a,b)>처럼 된다. 12)의 예문도 이와 같은 형식화가 가능하다. <오다(x) {-고} 하다(a,b)>. 12)의 예문은 인용의 형식으로 간주되어 온 것인데, 그 형식화 양상이 11)의 경우와 매우 흡사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차이는 다만 두개의 명제를 연결시키는 연산자가 {-게}나 또는 {-고}나 선택만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인용의 뒷 명제 ‘하다’에서 그 논항 (b)가 앞의 명제를 전부 받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이러한 구조상의 유사성은 사역의 ‘하다’와 인용의 ‘하다’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도록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여 준다. 똑 같은 ‘하다’의 형식을 가진 명제에서 ‘하다’가 연산자 {-게}와 통합하면 사역으로의 해석 절차가 진행되고, 대신 {-고}와 통합하면 인용으로의 해석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예문 13)은 소위 강조의 보조동사 구문으로 여겨졌던 예이다. 본고에서의 처리법을 좇으면 본동사와 손색 없는 지위를 받으며, 그 형식화는 <먹다(x,y) {-어} 하다(a,b)>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논항 (b)가 앞의 명제를 받고 있다.

14) 철수는 담배를 피우지만, 영희는 안 한다.

15) 철수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영희는 그 문제를 풀지 아니한다.

예문 14)에서 ‘하다’는 ‘피우다’를 대신하여 쓰였다고 얘기되는 이른바 대용 용언이다. 본고에서는 ‘하다’ 자체를 대용 용언으로 보는 입장을 버리고, 대신 ‘하다’라는 술어 자체에 대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룩되어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하다’는 본질적으로 대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하다’에 속한 기본 의미가 다른 외부의 조건과 결합하게 되면 대용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⁵⁾ 예문 15)는 부정의 보조동사들이다. 여기서 부정을 나

5) ‘하다’의 기본 의미에다가 지시능력을 갖춘 대명사들이 결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 등에서처럼 14)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 철수는 담배를 피우지만, 영희는 그걸 안 한다.

만일 뒤의 명제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쓰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2) 영희는 안 한다.

이 때에는 ‘하다’의 내용이 전혀 명세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

타내는 기능은 앞의 ‘못’과 ‘아니’가 담당하고 있다. ‘하다’는 이런 부정의 요소에 통합되어 또 다른 내용을 첨가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의 ‘하다’와 대용의 ‘하다’도 서로 관련이 있음이 논의될 것이다. 이들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피우다(x,y)|-지만 NEG하다(a,b)>

15) <플다(x,y)|-지 NEG하다(a,b)> |-고 <플다(x,y)|-지 NEG하다(a,b)>

위의 형식화에서 뒤의 명제의 논항 (b)가 앞의 명제를 전부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바로 전에 언급된 요소들과 같이 처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하지만, 우리가 가졌다.

17) 어렵꽃하다, 반짝하다.

18) 공부하다, 노래하다.

19)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예문 16)은 지시대명사를 선행시키는 구문(예 : 그렇지만)이므로, 대용 형식에서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7~19)의 경우는 접미사와 조사로 여겨져 온 예들이다. 이들도 ‘하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앞의 독자적 통사 행위를 하는 부류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들은 ‘하다’의 기본 의미에다 구속형태로 실현되는 통사조건이 가미되면, 접미사와 조사에 걸맞는 최종 의미가 도출되는 것이다.⁶⁾

다’가 어떠한 내용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 극단적으로는 (2)의 ‘하다’가 대용의 형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1)과 (2)의 예에서 우리는 대용의 근거가 같은 통사 자격을 갖는 선행 술어와의 관련에서 유도되고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하다’의 대용은 본질적인 경우가 아니고, 지시대명사 등과 결합하여 이를 수 있는 부차적인 관계라고 말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지시대명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의 조건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6)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환경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소위 ‘-아하다’의 구문이다. 이 형식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과 통합되어 있는데(좋아하다, 기뻐하다), 辭典에서는 하나의 낱말처럼 등재되어 있다. 만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소들의 결합으로 볼 때에는 결국 ‘語基-아-하다’처럼 분석될 수 있을 것

이상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실현 환경들을 살핀 뒤 이들을 분류하고 형식화하여 보았다. 우리는 그 형식화 과정에서 몇 종류의 同型(isomorphic structure)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를 메타-언어로 더욱 간단하게 나타내자. 앞의 명제를 P로 뒤의 명제를 Q로 표시한다. 먼저 '되다'의 경우를 보자(여기서는 Q가 '되다'에 해당함).

- 20) Q(x)
- 21) Q(x.y)
- 22) P(x.y) | -게 | Q(a.b) (단, (b) = 'P(x.y)')
- 23) Stem-Q

위의 네가지 환경에서 20)과 21)을 '되다'가 본동사로 쓰이는 점에서 하나로 묶어 나타내기로 한다. 그러면 Q는 경우에 따라선 논항을 하나 갖거나 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되다'의 실현 환경은 결국 세가지가 있는 셈이다.

이다. 여기서 어기와 '하다' 사이에 | -아 - | 라는 어미를 개재시킨 것으로 보는 것은 | -아하다 | 라는 어미가 한국어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 -아 | 를 含意動詞에 개재되는 어미로 규정한 바 있는 데(김지홍 1984),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다'라는 동사의 짝을 찾을 수 없는 점이다. 함의동사는 모두 의미론상의 대립을 이룰 수 있는 相對 동사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하다'를 함의동사의 어미 | -아 | 에 통합되는 함의동사군으로 파악한다면, 이는 짝이 없는 최초의 함의동사로 등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不具備에 따른 많은 설명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필자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다'에 대한 기본 의미를 본고는 [分立性]으로 설정한다. 이 의미는 형상이나 성질에 적용될 때에는 [幅]의 도출 의미를 갖는다. '좋다'와 '좋아하다'가 서로 비교될 때에, 그 차이 중 하나는 전자가 하나의 판단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감정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감정의 상태가 하나의 언급 주체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두 의미가 중복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좋아하다'라는 말로써 언급될 때에는 감정의 지속적인 상태(幅)를 지시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아하다'의 구문을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본고에서 상정한 절차(持續性 또는 幅)으로써 '-아하다'를 수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아하다'는 먼저 통사적 기제로 다룰 수 있음이 논증되고 난 뒤, 통사에 따른 각각의 형태소들의 의미자질이나 통사 특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임시 '-아하다'를 사전의 처리방식에 따라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넘어가기로 하겠다.

‘하다’는 P와 Q사이에 게재되는 연산자들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되나, 이 연산자들이 게재된 구문들은 모두 ‘구조적 동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동형성을 하나로 나타내어 그 실현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하다’를 Q로 표시함).

24) $Q(x,y)$

25) $P(x,y) | -\text{게}, -\text{고}, -\text{야}, -\text{지만}, -\text{지} | Q(a,b)$ (단, $(b) = 'P(x,y)'$)

26) Stem-Q

위의 두 술어들의 실현 환경은 아래와 같이 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7) 단독 명제의 형식

28) 둘 이상의 명제들이 통합되는 형식(단, 앞의 명제는 뒤의 명제의 논항이 됨)

29) 語基에 접미되어 있는 형식

이들은 모두 제1의적인 기본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의 기본 의미(type)가 결정되면, 여기에서 위의 세가지 통사 조건들이 결합되어 도출 의미를 생성하게 된다. 앞으로의 논의의 전개는 엄격히 다음의 순서를 밟는다. 첫째, 기본 의미를 설정한다. 둘째, 기본 의미에다 통사 조건들을 부여한다. 셋째, 도출 의미를 최종 생성한다. 여기서 도출 의미를 부여받는 예문들은 구체적인 실현 사례(tokens)가 된다. 다음 장에서 ‘하다’의 기본 의미부터 다루어 나가기로 한다.

III

술어 ‘하다’와 ‘되다’의 기본 의미(type)는 무엇일까? ‘되다’는 변화를 나타내므로 쉽게 이와 관련된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다’의 경우를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우선 ‘하다’의 문제부터 다루어 나가자. ‘하다’의 기본 의미를 찾기 위하여 ‘하다’가 가질 수 있는 실현 예문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하다’의 실현은 대체로 세가지 환경을 가졌었다(24에서 26까지). 여기서 24)의 형식은 쉽게 하나의 의미를 상정해 낼 수 있다. 그러나 26)의 형식은 좀더 사려를 요한다. 필자는 象徴語 語基에 붙는

‘하다’의 기본 의미를 다른 접미사들과 관련지으면서 찾아본 적이 있다(김지홍 1986). 거기에서 필자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통합되는 상징어 어기의 의미가 시작점과 끝점이 分立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간단하게 [分立性]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두 極點이 分립되어 있다는 특성이 공간적인 조건과 결합하면 面積이나 幅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넓죽하다, 자옥하다), 시간적인 조건과 결합하면 時幅이나 時差의 의미를 나타내었다(깜박하다, 출렁하다). 또한 형상이나 성질과 같은 조건에 어울리면 持續性이나 폭(또는 덩어리)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응큼하다, 화끈하다). 본고에서도 分립되어야 하는 특성을 기본 의미에 장치하고, 여러 실현 예문에다 적용하면서 그 시험을 거치도록 하겠다.

본동사와 사역동사로 쓰였던 ‘하다’는 각각 의도 또는 의지가 지속성을 지녀야만 한다. 이 지속성에서 우리는 [분립성]이란 기본 의미(type)의 무리 없는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속성이란 성질은 상징어 어기가 형상이나 성질의 조건과 통합될 때에 갖는 의미였다. 상징어에서의 지속성이, 행위성을 요구하는 본동사와 사역동사의 그것들과 어떻게 차이를 지닐 것인가? 이 경우에는 본동사와 사역의 구분이 行爲性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본동사에는 [자발성]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사역동사에는 [사역성]을 부여하기로 하자. 다시 말하여, [분립성]이라는 기본 의미에다 통사적인 조건으로서 본동사 조건과 사역동사 조건이 부가되면(이 때 의미상으로 행위성의 조건이 부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종 의미 해석에서는 [자발성]과 [사역성]을 부여받는다. 이 때에 통사 조건은

30) $Q(x,y)$

31) $P(x,y)$ - 계 $Q(a,b)$

와 같이 된다. 기계가 한국어의 자료를 읽어갈 때에 음운 형식으로서 ‘하다’를 만나면, 우선적으로 그 기본 의미인 [분립성]을 부여하고, 다음 ‘하다’가 실현된 환경을 조사하게 된다. 이 때 환경이 30)과 같으면 ‘하다’의 최종 해석을 [자발성]이라고(단, 자발성이란 말은 행위성을 포함하는 것임) 부여한다. 이 해석을 받으면 기계는 전체 문장의 해석을 시도하는데, 여기서는 논항들이 관여하

게 된다. 곧 (x)에 해당하는 논항이 (y)라는 논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이루었음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31)과 같은 환경이면, 기제는 [사역성]의 해석을 진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게}라는 연산자가 수행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게}가 실현되는 형식을 간단히 <P{-게}Q>라고 표현하자. {-게} 연산자는 P라는 목표점으로 Q라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지시한다(김지홍 1985). 따라서 앞의 명제는 뒤의 명제의 목표가 되고, 뒤의 명제는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으켜졌음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목표의 성취 여부는 언어 표현으로써는 알 수 없고, 다만 화용론적인 상황에 의해 암시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상 [사역성]의 해석은 ‘하다’에 직접적으로 붙기 보다는, 엄격히 말하여 연산자의 의미 특성과 결합하여 자연히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보이면, ‘하다’의 중간 의미인 [행위성]이 연산자 {-게}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여기 [행위성]과 [목표성]이 결합하여 결국 [사역성]이란 최종해석이 도출되는 것이다.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연산자 {-야}와 결합된 ‘하다’는 앞의 명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든지(의무의 뜻), 또는 당위성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연산자가 지시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하다’는 앞의 경우와 같이 [행위성] 정도의 중간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에 {-야}의 의미 내용이 부가된다. 연산자 {-야}는 ‘마땅히 지속적으로 행위를 이룸’을 가리킨다고 잠정적으로 상정해 두자. 이 의미와 [행위성]이 결합하여 ‘당위성이나 지속적인 수행성’의 최종 의미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다음에서 인용으로 처리되어 온 경우를 살펴보자. 엄밀히 따지면, {-고}라는 연산자를 매개로 한 ‘하다’는 남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 32) 바쁘다고 하여 서둘러 일을 망친다.
 33) 그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환영하겠다.

예문 32)에선 ‘-고 하다’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인용의 내용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바쁘다’는 것은 하나의 상황일 뿐이고, 이 상황을 파악한 언급 주체가 ‘하다’라는 술어를 실현시키면서 그 상황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33)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假定的인 상황-‘오다(x)’-이 ‘하다’에 의해

언급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인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러한 예문의 경우도 모두 인용의 예문과 그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다. 이들을 하나로 포괄하기 위하여 [言及]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기로 한다. 이 때 [언급]이라는 의미 요소가 [분립성]이라는 기본 의미와 어떻게 상관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고} 연산자에 의해 지시되는 ‘하다’의 의미로서 [언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언급]이라고 함은 不在의 상황이나 不知의 상황—채 인식되지 않은 상황도 포함함—을 지시하거나 환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급되는 상황과 언급할 수 있는 話行의 실제 상황이 필요하다. 이 두 상황은 시공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인식상에서 최소한 관련을 맺지 않은 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여기서 떨어져 있는 특성에 [분립성]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에 적용하던 [분립성]과는 다소 다른 점에 주의를 요한다. 이전에는 [분립성]이 적용되는 존재 그 자체에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별리어 있어야 함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두개의 다른 상황이 서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전의 적용은 단지 하나의 존재만 있으면 그 [분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개의 존재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존재(상황)는 말을 함으로써(話行) 필연적이고 당연하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언급]에서의 분립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언급되는 명제의 내용이 현실의 실제 화행 장면과 ‘동시성’이나 ‘동현장성’을 부여받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다’가 기계에 의해 읽히지면 우선 [분립성]의 의미 요소가 부여된다. 그리고 <P|고Q>의 환경을 기계가 읽으면 ‘하다’에 다시 [언급]의 해석을 주게 된다. 단, 여기서 앞의 명제가 실제 발화 장면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 때 그 분립성을 확인받을 수 없으면 그 문장은 모순 문장으로 판명나고 기계는 더 이상 의미 해석의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다.

위에서 도출된 [언급]의 의미는 대용 표현의 경우에까지 응용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대용 표현은 영어에서와는 달리 ‘하다’ 단독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 대신 지시대명사와 같이 쓰여야 충분히 대용의 역할을 해 낸다.

34) ”철수도 영화를 보았고 나도 했다.

35) 철수도 영화를 보았고 나도 그랬다.

만일 ‘하다’ 자체가 대용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면, 예문 34)는 문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장은 어색하게 들리거나 비문법적인 관정을 받는다. 대신 지시대명사와 함께 쓰인 35)의 예문은 완벽하다. 대용의 기본 형식이 ‘지시대명사-어미-하다’의 구조로 확립된다면, ‘하다’는 대용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언급]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용의 구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본격적인 논의는 피하기로 한다.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대용으로 일컬어져 온 ‘하다’가 그 사실에 있어서는 지시대명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고, ‘하다’의 의미는 [언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만을 일차적으로 지적해 두기로 한다. [언급]이라는 의미 자질에 지시대명사가 통합되면, 지시되는 대상을 가리켜 주게 되므로 종전에 일컬어져 온 대용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부정의 보조동사는 구조상 앞의 인용의 형식과 유사하였다. 대용의 ‘하다’가 [언급]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음이 확실해진다면, 구조적 유사성에서 암시되는 비슷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겠다.

36) 못 푼다, 안 푼다.

37) 풀지 못한다, 풀지 아니한다.

위의 예문에서는 소위 단형 부정(또는 동사 부정)과 장형 부정(또는 문 부정)이 실현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동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심도있게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었다.⁷⁾ 이 과정에서 ‘하다’라는 형태소의 실현에

7) 그 동안의 부정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이기용(1979: 88)에서는 두 형태의 부정이 상호함의(mutual entailment)를 성립시키므로 동의가 되지만, 화용론적 측면에서 함의문을 갖는지의 여부로써 두 부정 형태의 차이가 발생된다고 지적하였다.

(1) 그는 안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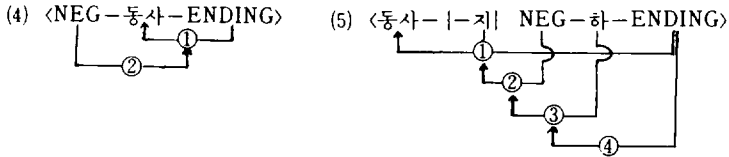
(2) 그는 죽지 않았다.

(3) 그는 겨우 살았다(함의문).

여기서 함의문 (3)을 내포하는 것은 (2)의 부정 형태라는 사실을 밝혔다(물론 함의의 성립 배경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직관적으로 함의문을 배태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첨가되어야 할 부분은 ‘하다’의 실현에 따른 추가의미의 부각에 있다. (1)의 예문은 단순히 ‘죽다’라는 사실을

주목한 논의는 드물었다. 본고의 논리대로 ‘하다’의 실현을 주목하면 [분립성]의 의미자질로 인하여 省略文을 언급하는 측면이 드러난다. 36)의 예문이 능력의 정도와 의지 표출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면, 37)의 예문들은 ‘하다’의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2)는 사실의 부정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하다’의 [분립성] 의미 자질에 영향을 받아서 ‘죽다’라는 사실 이외에 그 사실과 떨어져 있는 ‘살다’라는 사실까지를 함의하여 주는 것이다. [분립성]이란 의미 자질이 부정될 사실과 이와 반대될 사실까지를 언급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부정의 구조와 관련하여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위와 같은 직관적 또는 부가적 省略를 위의 부정 형태의 구조적 차이와 잘 어울려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직관”의 연계화 작업이 되겠다.



(4)와 (5)의 도식은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否定化 절차다. ‘NEG’ 요소의 부정화 절차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이 화살표 방향이 된다. (4)에서는 동사의 의미 내용에 대하여 부정 요소가 직접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결과는 사실의 부정으로 출력된다. (5)에서는 그 절차가 좀 복잡하다. 우선 |-지를 매개로 하여 어말어미의 시제나 서법이 동사에 부가된다. 그 다음 부정 요소가 동사의 의미 내용에 작용을 한다. 이 결과는 (4)에서의 절차와 꼭 같다. 차이가 있다면 |-지어미를 매개로 하여 부정 요소가 뒤에 나타난다는 실현 순서상의 뒤바뀜이 되겠다. 이들은 의미 도출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5)에서는 (4)에서와 같은 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 ‘하다’와 결합하는 순서가 진행된다. 여기서 함의문이 배태되는 것이다. 위에서 함의문을 갖는다는 직관은 이러한 구조적 결합의 순서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연산자 |-지 어미의 역할에 대한 명세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는 시제나 서법의 형태소를 선행시키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먹었지 않았다, *먹겠지 않았다), 세 기능을 상징할 수 있다. 첫째 시제나 서법의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둘째 시제나 서법의 요소를 배척하는 성질을 가졌다. 셋째 시제나 서법의 요소를 삼투시키는 기능을 가졌다. 이 중 본고에서의 해석 절차에 맞는 기능은 세번째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동사가 事實性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제와 서법의 결합을 이룩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하다’에 통합되어 있는 시제와 서법의 요소를 끌어다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지 어미가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말어미를 끌어들이고 난 뒤, 부정 요소가 작용한다. 다음 ‘하다’에 의한 省略文이 지시되고 ‘하다’에 대한 어말어미의 시제 서법이 결합된다.

실현에 따른 함의문의 언급을 더 첨가시켜 주고 있다. 여기서 함의문의 성립은 37)의 예문에다 주제격 격어미인 {-는}을 더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

37-a) 풀지는 못 한다. (能力에 대한 否定)

37-b) 풀지는 아니 한다. (意志에 대한 否定)

37-a)는 ‘풀다’라는 사실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알고 있을 수 있다. 37-b)에서는 36)의 사실(의지)의 부정이라는 측면 말고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른 重義性을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겠다. 여기서는 다만 ‘하다’가 무의미한 虛形態가 아니고, 함의문을 배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용언의 어기에 통합되는 ‘하다’는 의미상으로 볼 때, [행위성]이나 [자발성]의 축으로 묶이는 편이 나올 듯하다. 그러나 어기와 접미사의 분리 현상을 놓고 볼 때에 그 분리가 덜 자유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 ‘노래하다, 일하다’ 따위는 오히려 본동사의 구문들처럼 구조화될 수 있다. ‘이룩하다, 뜻하다’ 따위는 어기와 접미사의 분리가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하다’의 기본 의미인 [분립성]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룩하다’와 같은 예는 행위성을 보장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뜻하다’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뜻하다’는 의도하다는 뜻과 지시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행위성]에 대한 조건과 [언급]에 대한 조건이 둘 다 필요하다.⁸⁾ 이 조건의 선택은 현재 화용론적인 것으로 돌려둘 수밖에 없는 듯하다. 여기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어기와 접미사 사이의 분리가 가능한 단어들과 불가능한 단어들 사이에 그들을 가릴 수 있는 엄밀한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리 가능한 단어들을 놓고서도 그 분리가 어느 한 쪽에서 중심이 되어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형태소가 모두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만 ‘하다’가 본동사의 지위로 가든지 또는 접미사의 지위로 가든지 간에,

8) 부사성 어기를 가진 ‘함께하다, 다하다, 같이하다’ 등의 경우는 ‘하다’의 의미를 [행위에 대한 언급] 정도로 상정하여 둔다.

‘하다’의 형태소로 실현되는 한에 있어서는 모종의 의미해석을 받게 됨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 구조상의 문제들은 차후 다른 기회에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與同格이라고 말해져 온 ‘-하고’의 경우가 되겠다. 이와 유사한 예는 ‘-이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고’도 또한 ‘-하며’로도 쓰일 수 있다. ‘-이며’도 ‘-이고’로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이 비록 화석화되어 버린 존재들이라고 하지만, 여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사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마땅할 것이다.

38)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39) 사과하며 배하며 포도하며 모든 과일을 맛보았다.

위의 예문들에서 ‘하다’는 [언급]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고나} {-며} 어미들과 어울려 언급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동격이란, 사실에 있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의 나열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나열되는 것들은 한꺼번에 같은 명제의 의미 지배 범위 내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은 중의성을 띤다.

40) 일하면,

이는 다음의 두가지 해석을 받는다.

41) 일을 하면, (몸에 좋다)

42) 일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다)

41)에로의 해석은 ‘하다’를 본동사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42)는 언급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의성은 ‘하다’의 여러 실현 예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다’를 전혀 별개의 존재인 두 형태소로 나누어야 할 근거는 못된다. 왜냐하면 41)과 42) 사이의 해석은 모두 ‘하다’의 기본 의미에서 각각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다’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음성실현이 ‘하다’로

나타나는 유사한 환경의 것들은 본고에서 모두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하였다. 이 때 통합의 근거는 기본 의미 [분립성]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세 가지의 통사적 실현 환경이 부가되었다. 특히 P와 Q의 두 명제가 복합되었을 때에는 그 두 명제를 결합하는 연산자의 내용에 따라 여러 의미가 도출되었다. 접미의 형태로 실현된 경우도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 의미가 도출될 수 있었다.

IV

‘되다’의 기본 의미는 [移行]을 상정하기로 한다. 이 기본 의미는 두개 이상의 분리된 상황이나 상태를 전제로 한다. [이행]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살필 때에는 화행 참여자의 인식이 문제가 된다.

43) 그가 내 친척이 된다.

43)에서 ‘그’는 나의 친척이 아닌 상태에서 나의 친척인 상태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화행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식에서의 변화를 지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가 내 친척인지를 모르는 어떤 화행 참여자의 인식에다 내 친척임을 일깨워 주어, 그 인식 상태에 이행 또는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제2장에서 살핀 ‘되다’의 실현 사례는 다섯가지(5~9)였다. 이들은 서로 별개의 것처럼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 의미(type)를 근거로 한다. 여기에 ‘되다’가 실현되는 통사 조건들이 부가되어 구체적인 최종 의미를 가지게 된다.

44) Q(x)

45) 아침이 되었다.

44)에서처럼 단일 논항을 갖고 실현될 때에는 그 기본 의미가 [變化]라는 도출 의미로 바뀐다. 단일 논항은 이행된 상태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정을 지시하는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 논항이 술어와 관련하여

이행 이전의 상태를 전제하게 됨은 물론이다. 45)에서 (x)는 ‘아침’으로 실현되었다. 이 논항은 대화상의 전제로서 변화 이전의 상태-아침 이전의 상태(밤 또는 저녁 등)-를 담고 있다.

46) $Q(x,y)$

47)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

48) 철수가 사람이 되었다.

46)의 형식화와 같이 두개의 논항을 갖고 있어도 ‘되다’는 [변화]의 뜻을 갖는다. ‘되다’의 이행이 마지막 논항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48)의 예문에서 두개의 논항은 외연적(reference)으로 동일하다. 이들은 비록 같은 외연을 갖지만, 내포(sense)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x)에 해당하는 ‘철수’는 인격적으로 사람이 덜된 또는 안된 상태의 존재가 된다. (y)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의 존재가 된다. 따라서 외연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내포적으로는 전혀 이질적이고, 두 존재 사이에 이행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y) 논항에 |~이/가| 대신 |~로|의 격어미가 실현될 수도 있다.

49) $P(x,y)|\text{-게}| Q(a,b)$

50) 그가 오게 되었다.

51) 일이 손쉽게 되었다.

49)의 형식화는 |~게| 연산자를 매개로 두 명제가 복합된 경우이다. |~게| 연산자는 P와 Q가 서로 다른 논항을 가질 경우(相異論項), P 명제는 언급 주체가 설정한 목표점이 되는 것이고, Q 명제는 그 목표점을 향해 어떤 행위나 상태를 현실적으로 이룸을 나타내었다(김지홍 1985: 18~24). 예문 50)에서는 ‘오다(그)’가 목표가 되는 것이고, ‘되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뜻한다. 목표점은 언급 주체의 인식(여기서 ‘되었다’고 말하는 주체의 인식)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설정되었다. ‘되다’라는 명제에 의해, 목표점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점 인식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인식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 이 때 ‘오다’라는 명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서는 알 바 없다. 언어 표현에 의하여 단지 인식상의 변화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그런 현실성의 문제는 언어가 쓰이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암시될 뿐이다. 이와 같은 점은 예문 51)로써 확인할 수 있다. 51)은 어떠한 일이 끝났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채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하고 확신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 두 경우의 선택은 언어 외적 상황이 결정한다. 여기서는 언급 주체의 인식 상태가 변화하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어떠한 일이 손쉽지 않던 상태에서 손쉽게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행 또는 변화되었음을 말해줄 뿐이다. 이행되기 이전의 상태와 이행된 이후의 상태를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논항을 새로 표시하여 주면 다음과 같다.

52) 'P(x,y) | -계 | Q(¬b,b)' 또는 'P(x,y) | -계 | Q(¬P(x,y), P(x,y))'

Q의 논항이 (¬b)에서 (b)로 이행함을 의미한다. 논항 (b)는 앞의 명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앞의 명제 P가 반대의 상태(또는 무관한 상태)에서 언어에 의해 표현된 상태로 이행 또는 변화하였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분포는 여기와 접미사의 통합이었다.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단, 漢字 語基와의 통합은 취급되지 않으나 여기서의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3) 그릇되다, 잘되다, 염려되다.

54) 고되다, 숫되다, 늦되다.

여기서 53)에 제시된 예들은 어기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들이다. 이에 반해 54)의 것들은 전혀 구속적인 형태들이다. 오히려 접미사쪽이 독립성이 있을 듯이 느껴지기도 하는 예들이다. 이들은 독립성에서 비록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모두 형상이나 성질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 '되다'와의 통합으로 인하여, 화행 참여자의 인식 속에 있는 어떤 변화를 가리킬 수 있음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에서 진행하는 작업의 방향은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사상에 드러나는 차이들은 次順位の 하위 구분에 이용된다. 현재 53)과 54)에서 드러나는 어기 독립성의 차이는 본고의 논리 전개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53)과 54)를 하나의 형태로 묶

어 처리하고자 한다. 이를 형식화한 것이 55)이다.

55) Stem-Q

여기서 Q에 해당하는 '되다' 접미사는 두 상태 사이의 이행을 지시한다기보다는 이행 또는 변화된 이후의 상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직관을 간단히 [이행후의 상태]라고 표시하자. 기본 의미에다 55)의 통사 조건이 가미되면 지금 설정한 최종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되다'는 네가지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공통 지반으로 [이행]이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여기에 각각의 통사 조건이 부가되면 최종 의미들이 도출되어 나오게 된다. 독립적인 명제로 실현된 경우는 'Q(x)'와 'Q(x,y)'였는데, 이 통사 조건이 부가되면 [변화]라는 최종 의미를 가진다. 명제 복합이 일어난 경우는 'P(x,y) | -계' Q(-b.b)'였는데, 이 때에는 화행 참여자의 인식이 앞의 명제(목표점)에 이행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접미사로 실현된 경우에는 이행된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었다.

V

이상에서 우리는 자리수 변동과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의 술어로 묶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고에서의 태도는, 이들이 설사 자리수 변동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의미가 같으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쪽이었다. 이를 위하여 의미 차원을 먼저 살피고 다음 통사 조건들을 부가했으며, 마지막으로 최종 의미를 도출하였다. 여기서 통사 조건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보조적인 데에 그쳤다고 불만스러워 할 수도 있다. 만일 본고의 작업이 文生成에 있었던 것이라면 부차적으로 보이는 통사 조건들이 크게 부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관들을 어떻게 형식적으로 문법에 반영하여 보느냐를 시험한 절차에 불과하였다. 기계가 한국어 문장을 읽어갈 때에 만나게 될 환경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계가 아무 문장이나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는 생각으로 자리수 변동의 문제에 접근하여 보았던 것이다. 본고의 논

리를 전개하면서 필자 스스로 느꼈던 불만들을 정리하여 본 논의를 맺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가 타당성을 부여받으려면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 기본 의미에 부가되는 통사 조건들은 모두 세가지로 형식화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술어들이 우연에서인지 모두 세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를 분포상의 동형성이라고 말할 때, 이 동형성은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 有緣性이 있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다’ 술어가 복합명제의 형식에서 많은 연산자들을 실현하고 있었는데, 이런 양적인 팽창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야 마땅하다.⁹⁾

둘째, 본고에서 설정되었던 기본 의미들이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또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언어 계통에서는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터인데, 이 작업이 정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물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소한 한국어 내에 있는 모든 술어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본 의미의 상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 작업 과정에서 의미들의 연합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합 체계를 검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주2 참조).

셋째, 의미 층위를 먼저 설치하고 이 위에 통사 조건을 부여하는 절차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증하여야 한다. 이는 자칫 통사론과 의미론의 혼동이라고 비판될 수도 있다. 필자는 한국어의 연구에 관한 한, 의미론의 영역이(그것이 어휘의미론이든 또는 형식의미론이든지 간에) 통사론 연구에 적극 간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통사론만으로 자족적인 어떤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이다. 아직 우리 학계가 나름대로 전세계를 향해 내놓은 학설이 없는 단계에서, 한국어 연구의 어떤 태도를 갖고 그것이 보편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형편은 못 된다. 그러나 우리가 소개 받고 있는 외국의 언어 이론이 한국어에 무리없이 적용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음성 실현 형식이 같은

9) 語基에 붙어 접미사의 형태로 실현되는 ‘하다’와 ‘되다’는 능동성과 피동성의 의미를 암시할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자발성]과 [이행 후 상태]라는 動的 靜的 의미들과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자리수 변동을 보이는 술어가 하나로 묶일 수 있음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이 대비적 의미를 지적하는 것만으로 그치고자 한다.

술어들 간에서 직관적으로 有線性을 암시받을 수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으로, 본고에서는 기본의미를 상정하고 이 기본 의미에다 통사적 실현 양식들을 부가시켜 마지막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방법론상의 하나의 試論이지 확립된 正論은 아니다.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그 우월성-문법을 구성할 때의 설명력과 그 문법 체계의 간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김완진·안병희·이익섭(1979) “국어학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 관악어문 4.
- 김지홍(1984) “A Study of Korean Implicative Verbs” 탐라문화 4.
- _____ (1985) “|-계|의 통합적 의미와 그 통사에 대하여” 서강어문 4.
- _____ (1986) “몇 어형성 접미사에 대하여” 백록어문 창간호.
- 남기심(1978) “연결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연세논총 15.
- _____ (1979) “연결어미 |-고|에 의한 접속문에 대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서정목(1984) “후치사 |-서|의 의미에 대하여” 언어 9-1.
-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 사전, 정음사.
- 이기용(1979) “두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 국어학 8.
-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_____ (1977) “문법사의 몇 문제” 국어학 5.
- _____ (1984) “중세어의 |-이| 부사화와 일부의 廢語 현상” 동양학 14.
- 정연찬(1984) “중세국어의 한 조사|-으랴|에 대하여” 국어학 13.
- Lyons(1977) *Semantics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ciszewski ed. (1981) *Dictionary of Logic: As Applied in the Study of Language*, Martinus Nijhoff Publishers.